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수 천 수만리 낭떠러지에  
추락했으나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망해가는 동구와 나라를 구하라」는  
시대와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촛불을 빙자하여 법치를 짓밟은 탄핵  
탄핵으로 등장한 사악한 좌파 정권  
적진과 내통한 위장보수 배신자  
이들을 심판하라는 시대의 특명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보수- 박근혜 대통령 1호 인사

윤창중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1대국회의원선거 동구(을) 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9	무소속	윤창중	남	1956.07.17. (63세)	탄핵무효 자유국민 전선 대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과정 졸업 (정치학석사)	(전) KBS 보도본부 기자  (전)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423,440	1,745,219	761,346	해당없음	장남:77,761 차남:839,114 손자:없음	만기제대 (육군병장)	장남:만기제대 (공군병장) 차남:만기제대 (공군병장)

##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소득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해당없음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47,329	0	0	
후보자	26,450	0	0	
배우자	15,101	0	0	
직계존속	해당없음			
직계비속	5,778	0	0	



# 윤창중은 의리인입니다!

동구(을)의 선택이  
대구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윤창중을 크게 써야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납니다!



# 윤창중은 무죄다!!

**2013년 5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DC 방문 때 일어난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 윤창중을 죽이기 위한 좌파언론의 준동이였음이 확인되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유진철 전 미주 한인 총 연합회장(전직 경찰)은 호텔 바(Bar)와 방 안에서 성추행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윤창중 워싱턴 사건은 미국의 사법체계에 무지한 국내 언론이 허위 과장된 보도로, 당시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을 제거하려는 음모임이 드러났다.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미국 사법체계에서 윤창중을 기소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것은 조작임이 틀림없다.

**2016년 9월 28일 발행된 미국 뉴욕 뉴스메이커는 말한다.**

**윤창중은 무죄다!**

윤창중은 고민하지 않고 따라가는 개 떼 습성의 한국 언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좌파언론들의 소설에 의한 희생양이었다.

(美) 뉴욕 뉴스메이커 보도

# 윤창중, 억울한 누명 벗었다



“  
보수언론인 윤씨는  
미국 사법체계에 무지한  
한국 언론과  
좌파세력에 당했다

”

- 유진철 전 미주 한인 총 연합회장 증언 중 -

유진철 전 미주총연합회장(전직 경찰) 곁정희 목격자 증언... "호텔 바(Bar)와 방안 성추행 전하 없었다" (4면 제1주)

유진철(OC) 경찰, 올 세 시간 제대로 수사한 적 없어... "경범죄 고발만 받아들여 상대·신고대상은 피해주장 여성과 다른 인물이고 연막무덤 상태" (4면 제1주)

한국언론 허위과장 보도와 좌파세력 선동에 국민들과 미주총포사회인 놀아나... 한국은 언론개혁부터 해야 (4면 제1주)

"여성 인턴은 윤창중 씨 방에 들렀지도 않았고, 호텔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미주경기를 치른 역한 민주당 출선이였다. 윤창중(OC) 전 협의회 대표인의 억울한 누명은 못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벗겨졌다. 지난 2013년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기간 중 열린 전 협의회 대표인의 성추행 사건이 실미지가 생기자 불합리한 선물의 등장으로 인해 물려진 것이다. 사건의 국적인 윤창중은 유진철(전) 전 미주총연합회장이었다.

경찰이 사건을 취조도 않고, 검찰이 기소도 안했는데 재판은 받으니까 보아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다. 이런 커이없는 언론을 접하는 국민들이나 미주총포들은 올 세가 불합리를 치자는 의민인을 찾았다. 허사건 세월이 흐르고 사건이 초저우지 되고 유진철 전 협의회 곁정희 목격이 나온 지금, 한국 언론은 올 억 억 번어라 신세이다. 허위과장 보도도 없고 사과기사도 없다. 다만 윤창중의 여성추행은 고발(사건)이 공중을 써서 근황을 소개하여 윤씨의 억울함을 간접적으로 소개 받을 뿐이다.

그는 1980년부터 미주총연과 인연을 맺어 1989년 제 9대 임우에 출선하면서 당시 시무총장을 지냈다. 당시 영어가 유창한 그는 영미의 관련은 업무를 도맡아 했다. 유 전 회장은 윤창중 씨 사건과 관련 최근 밝힌 목격담을 통해 "사건 당일 밤과 다음 날 아침, 올 세 시간 관련자들을 내가 현장에서 직접 봤다"면서 "불합리한 전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로 보 일간지 증언기사의 고백이다. "한국 언론은 인연기부터 개개 같은 승상이 생겨서다. 한 곳에서 '잘못했다'고 주장하면 두 회고 물러가서 잘못했다"고 보도한다. 윤창중, 윤창중 사건이 공중성이 개개 승상이 비롯한다. 어느 한곳도 '아니오'라. 기존의 언론보도가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음은 유 전 회장의 목격담을 요약, 원자가 재구성한 내용이다. "나는 2003년 5월 6일 워싱턴DC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차에서 1시간 20분 정도 호텔에서 열린 동로고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행사장에서 분주하게 오가던 윤창중 씨를 목격했으나 그 때는 그가 청와대 대변인임을 몰랐다.





---

윤창중 워싱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창중은 억울합니다!

---



# 시대가 명령한 국민투사 행동하는 보수! 확실히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법과 정의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윤창중과 박근혜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지금 대구 동구에는  
윤창중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의의 투사!  
윤창중이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창중이 의롭게 부활했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부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의  
핵심 선택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  
총횡무진 저격수로 활동한 명 정치평론가  
윤창중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배신의 정치!  
위장보수!  
사악한 좌파!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명한다!

박근혜 대통령  
제1호 인사!

윤창중

무너지면 견잡을 수 없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굴복시킨 의리의 정치  
오직 윤창중의 돌풍만이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 배신의 정치를 청산할 **종결자**
-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 낼 **투사**
- 문재인을 끌어내릴 **전략가**
- 대구 동구를 제2의 싱가포르로 발전시킬 **능력자**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는 **애국자**

# 동구를 제2의 싱가포르로!



## 일자리 경제! 멈춘 동구,

제2의 싱가포르를 꿈꾸며!  
동대구역과 혁신도시,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율하 첨단산업단지를 아우르는

### 일자리가 넘쳐나는 동구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20만 개 일자리 창출
- 로봇 클러스트 산업 주력 단지 조성
- 대규모 유통물류 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 이케아 유치



### 거주 만족 살고싶은 동구

- 물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
-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규제 혁신
-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지원 확대



### 문화&예술

- 박근혜 대통령 현대사 기념관 건립
- 불로동 고분군 세계 문화 관광지 개발
-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 소상공인 프로젝트

-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 자영업자 세제혜택, 재창업 지원 강화







#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동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첨단 산업의 메카! 혁신 비즈니스와 쉼처 밸리 산업 특구로 세계적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 혁신도시 대개혁 청사진

- 입주 공공기관 관련 산업 유치
- 교육여건 향상, 문화시설 확충, 종합병원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
- 주차시설, 교통여건 개선
-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 SW 융합클러스트 인프라 구축



## 팔공산을 제2의 알프스로

-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 팔공산 명품 둘레길 조성, 자연생태 체험 숲 조성
- 팔공산 테마호텔 건립
- 금호강, 동촌유원지 연계 관광 프로젝트



## 동구를 세계1등 도시로

- 명문 인문계 고교 육성 및 유치
- 안심~하양 복선화(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센터 건립
- 여성친화도시, 스마트시니어산업 기반조성
-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 / 대형물류센터 조성



## 어르신들 노후 안심

- 시니어클럽 유치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 치매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 동구 종합노인복지회관 건축



# 대구를 구해낼 용병 윤창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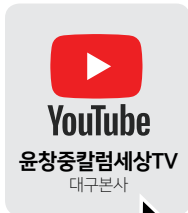
## 4월 15일, 태풍이 몰아칩니다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변화를 두려워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 윤창중이 살아야 박근혜가 삽니다!



- 고려대학교 화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석사
- KBS 보도본부 기자(전)
- 문화일보 논설위원(전)
-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부회장(전)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전)
-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전)
- 청와대 대변인(전)



행동하는 보수 무/소/속

# 윤창중